

도시재개발 지역 노인이 인식하는 재개발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연구*

최희경**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도시의 지역사회 환경에 처한 도시재개발 지역 노인들이 인식하는 재개발의 의미와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노인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도시재개발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재송동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5명의 노인 연구참여자와 함께 포토보이스 프로그램과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촬영한 총 128장의 사진과 텍스트를 재개발의 의미와 바람직한 재개발의 방향성의 2개 범주로 나누었다. 재개발의 의미 범주에는 '사라졌으나 잊을 수 없는', '얻은 것과 잃은 것' 2개의 주제가 포함되었으며, 재개발의 방향성 범주에는 '동네 개성의 보존', '번듯한 동네보다 안전한 동네', '다양성과 포용성의 주민편의 시설', '개발주체의 공공성과 주민참여' 등 4개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재개발의 의미에서 경제적 가치보다 삶의 흔적과 기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재개발의 방향성으로 지역 특성 및 공동체성 유지, 보행 안전을 비롯한 안전 증진, 주민 혜택과 참여 증대, 지역 사회의 역사와 특성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노인 역할의 중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도시재개발, 지역, 노인, 재개발의 의미, 재개발의 방향성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5101).

**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교수(hkyung@silla.ac.kr)

1. 서론

현대 도시는 근대화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노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에 기초하여 발전해왔으며, 도시의 구조와 기능은 (비노인)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노령화 경향에 따라 도시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직선형으로 팽창, 발전해온 현대 도시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도시 발전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도시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자동화, 밀집화되고 고도화된 도시의 거주환경은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현대화된 도시에서 노인들은 소외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의 고령화는 당면문제가 되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8대 광역시 중 6개 도시가 이미 고령사회 기준인 노인 인구 14% 이상이며, 우리나라 노인의 70% 이상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65세 이상 노인 인수로 진입하면서 도시의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이윤경 외, 2020).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개발과 농촌 해체로 도시 거주가 일반화되던 ‘이촌향도’ 시기에 도시로 이주하여 정착한 세대이기에, 우리나라의 도시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경제개발과 도시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계획적으로 급격히 팽창한 도시들은 기반 시설 부족과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필연적으로 재개발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 노후주택 제거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확대된 도시재개발은 1990년대 이후 지가 상승을 통한 부동산 가치 제고를 위해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이재우 외, 2014). 이후 도시재개발은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로 변화하여 정착되었으며, 현재 민간 중심의 재개발과 공공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¹⁾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환경이 노후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도시재생법’)²⁾ 제정 후 2017년부터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총 284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

1) 모든 재개발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는 (도시)재개발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며, 정부 추진 사업으로서의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법적 명칭대로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일반적 의미에서 기존 도시재개발의 대안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김혜천, 2013).

2)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

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사업이 지정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 가속화되는 도시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확대에 따라 노후화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지역사회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개발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개발, 편리화를 의미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익숙하고 친밀한 장소나 건물들이 해체되고 주변이 황폐해지며, 이웃들이 떠나가고 외지인들이 유입되는 재개발 과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희경, 2019). 활동 반경이 좁고 지역 사회 거주 시간이 긴 노인들은 도시 환경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급격한 환경 변화를 유발하는 도시재개발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기 쉽다(Peace et al., 2006).

또한 정부와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지가와 임대료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중심 도시재개발 모두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나 배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에서 계속 살기 원하는 사람들, 세입자나 임차상인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재개발의 의사결정은 돈과 힘과 정보를 가진 강자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이영아, 2019; 정석, 2016; 주대관, 2018). 특히 노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아왔고, 계속 살아가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언 기회와 정보가 부족하며 이동 능력 제한 등으로 지역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Buffel et al., 2012). 따라서 도시재개발의 의사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개발의 의사결정과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노인의 경험이 반영된 경우도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들이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어떤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재개발의 결과가 노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도시재개발 정책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개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며,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노인들이 도시재개발로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 지역사회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재개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령사회의 도시재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개발 지역 주민으로서 노인들이 인식하는

적으로 활성화(도시재생법 2조 1항)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산업 쇠퇴, 교외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증가, 도심공동화 등을 겪고 있는 도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실행한다(2013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재개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도시재개발 지역 노인들이 지향하는 재개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도시재개발과 지역사회 주민

사회변화에 따라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서의 도시발전은 도시재건, 도시회생, 도심재개(urban renewal),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등의 용어로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 이후 진행되어온 재개발 사업은 주로 물리적 환경 개선 차원에서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민간업자를 통한 정비 사업에 치중되었기에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 이웃 간 단절, 획일적이고 이질적 공간 개발 등의 부작용이 뒤따랐다(이재우 외, 2014). 이후 도시재개발이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보편화되었으나 2013년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환경, 문화, 사회복지의 향상까지 모두 포함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김혜천, 2013).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은 부동산업자나 건설기업을 위한 자본주도형 개발(개발의 사유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도시는 분리된 공간을 통해 사회, 경제적 차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다(정석, 2016). 세입자와 저소득층은 땅값과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주거조건이 더 나쁜 주변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원래 거주 지역에 형성되었던 다양한 자원과 관계망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재개발의 문제를 나타내는 일반화된 개념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재개발 이전부터 살던 지역 주민의 보금자리를 뺏는다는 의미에서 ‘동지내몰림’ 현상으로 번역될 만큼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조진호, 최열, 2018).

도시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공동체 정신 함양까지 포괄하는 도시 발전을 지향한다(강혜규 외, 2017; 이삼수, 2017).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위주로 진행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 중심의 도시 변화, 난개발과 지가 상승, 지역사회 주민의 소외와 배제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김동완, 2019). ‘도시재생사업’ 영역이 주거지뿐 아니라 상업과 산업단지까지 확장되면서, 기존의 도시재개발이나 시설 공급 위주의 지역개

발과 성격이 같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영은, 2018). 원래 거주하던 주민이 재정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제는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모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난제로 나타났다(이영아, 2019; 조진호, 최열, 2018).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와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주체로 한 역량 강화와 주체 간 관계 형성이 대안적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이 논의에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참여와 자조의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결과가 지역 전체의 자산 증가와 공유로 연결되도록 한다(신현주, 강명구, 2017; 이윤희 외, 2020; 이정동, 2020). 그러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민설명회 등 일방적 참여방식에 편중되어 양방향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주민참여조직의 대표성이 없으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나경, 2021; 이정동, 20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적 가치에 치중되어 그 혜택이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게 공유되기 어렵고, 주민 참여라는 대안적 방법도 현실에서는 제한적으로만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시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언권이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비주류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은 배제되기 쉬우며, 이들이 사업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이영아, 2019; 주대관, 2018). 따라서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서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들의 경험을 경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2) 노인과 도시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환경은 대기와 수질, 주변의 건물과 지형, 대중교통시설, 도시의 디자인, 공공서비스 공간,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며, 사회적 환경은 지역에서의 범죄나 안전, 다양한 사회 조직의 특성, 이웃과의 상호교류 등을 의미한다(Diez-Roux & Mair, 2010).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일상생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은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다. 활동반경이 좁고 건강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수록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Houben, 2001).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교통시설, 자원 및 서비스 접근성, 소음, 교통환경, 식사 여건, 서비스 및 녹색공간에 대한 접근성, 보행편의성 등이 노인들의 우울 증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Weich

et al., 2002; Gary, Stark, & Laveist, 2007; Berke, et al., 2007). 우리나라에서는 보행환경, 대중교통환경, 공원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노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진, 안건혁, 2011; 이희연 외, 2015). 사회적 환경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종 구성, 사회적 자본, 주거지의 안정성 등은 노인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Aneshensel et al., 2007; Menec et al., 2011).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환경 요인은 교통 접근 편의성, 지역사회 무질서(치안문제), 주택환경 편의성 등이었다(이상철 외, 2016). 물리적, 사회적 차원의 고령친화 환경과 공동체의식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세미, 임정숙, 2021),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쇠락하고 공동화되더라도 이웃과 공동체성의 유지, 공공시설과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경, 2019).

일자리나 주거의 편리성, 교육환경 등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는 비노인층과 달리, 노인들은 예전부터 살던 곳에 그대로 거주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주변 지역과 집에 대해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을 느끼며 자기정체성을 유지한다(Rowles & Ravdal, 2002). 그러나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는 도시 지역의 노인들은 공간의 변화 뿐 아니라 관계망의 단절,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자아정체성과 자율성의 위기가 초래된다(Peace et al. 2006). 오랫동안 거주하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노인들에게 급변하는 지역사회환경과 불안정한 이웃관계는 노인들의 생애 경험에 혼란을 주고, 노인들이 유지해오던 전통적 가치와 부조화를 초래하여 자기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은선, 김광중, 2011; Phillipson, 2010). 따라서 급변하는 도시의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환경 변화를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노인들의 인식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연구방법

1) 포토보이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그들이 촬영한 사진과 사진에 담긴 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식의 하나로, 개인이 느끼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을 참여적 방식을 통해 이끌어내고자 한다(Latz, 2017).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선정하여 직접 촬

영하고, 사진의 의미를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면서 집단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Wang & Burris, 1997).

포토보이스는 특히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집단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 집단(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이주민, 노숙인, 성매매여성 등)의 집합적 경험을 사진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참여자 주도형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라고 할 수 있다(Jurkowski & Paul-Ward, 2007; Dumbrell, 2009). 이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문제해결의 도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포토보이스의 주된 주체는 연구참여자이며, 연구자는 촉진자이자 옹호자로서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uffy, 2011).

휴대전화 보급이 보편화되어 간편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토보이스 방법은 노인들도 손쉽게 참여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소극적인 노인들이 사진 촬영이라는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재개발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와 견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토보이스 방법은 본 연구에 잘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의 A 노인복지관을 통해 모집 후 선정된 총 5명의 연구참여자와 함께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주간 5회기의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제시된 주제에 맞게 사진을 촬영한 후 프로그램 보조자가 사진 파일을 취합, 정리하여 프로그램 시간에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사진을 설명하고 사진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포토보이스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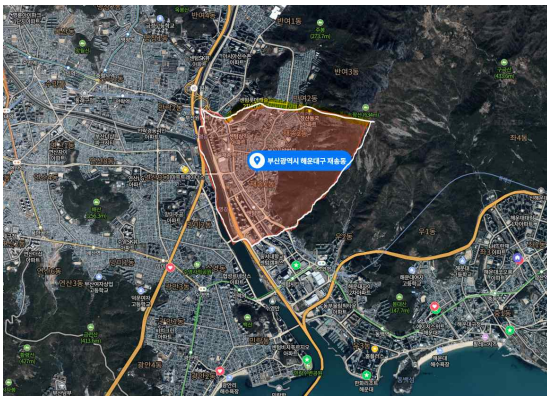
회기	주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요 및 연구참여자 소개, 일정 및 활동 내용 소개
2	우리동네 자랑	우리 동네가 좋은 이유, 소개하고 싶은 곳, 자랑하고 싶은 곳, 의미 있는 장소 소개하기, 나의 삶과 우리 동네 이야기
3	지금 우리동네에서 무슨 일이?	재개발과 관련된 동네의 변화, 변화에 대한 느낌과 생각, 사라지고 있는 것과 남은 곳들, 사라지면 안되는 것들
4	우리동네,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재개발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 재개발 이후 변화와 희망사항,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기, 지역사회 재개발과 발전에 대한 희망을 담은 손편지 쓰기
5	포토보이스 상영회	포토보이스 결과물 영상 슬라이드 상영, 포토보이스 참여경험 공유

연구자는 포토보이스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노인들이 평소에 익숙하게 지나치던 지역사회를 더 눈여겨보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집단 활동과정에서 재개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촉진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주제별로 전체 사진 중에서 적절한 사진을 선택하고 기록과 함께 편집하여 '재송동,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포토북을 발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 함께 포토북 상영회에서 결과 내용과 프로그램 과정을 성찰하였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계획 시간을 가졌다. 포토북을 지역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 배포하여 지역사회 주민 및 정책결정자들과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도시재개발 정책에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2) 연구대상 지역과 연구참여자

(1) 연구대상 지역

본 연구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오랫동안 형성된 주거지역 중 주변의 재개발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들을 조사한 후,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과의 접촉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에 적극적인 재송동 지역을 선정하였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裁松洞)은 해운대구의 서부에 위



치하며 면적 4.16km², 2020년 12월 현재 인구는 2만 6,110가구에 총 6만 4,184명이다. 동쪽은 장산[634m]을 중심으로 남동쪽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있으며, 서쪽은 수영강 하류에 연해 있다. 서쪽 산록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골짜기를 따라 아파트 단지과 주택이 들어서 있다(위성사진 흰 선 내부 삼각형). 행정동은 재송 1동과 재송 2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래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재송마을과 뒷골마을을 포함하고

있다(부산역사문화대전, 2020).

재송동(1,2동)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5500여명으로 해운대구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등록 장애인은 2200여명으로 해운대구에서 두 번째, 한부모가족은 800여명으로 해운대구에서 가장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1.9%로 해운대구 평균보다 낮다(해운대구, 2019).

재송동 인근에는 과거 군사비행장이던 수영비행장 부지에 조성된 센텀시티가 있다. 센텀시

티는 세계최대 규모의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즐비하고 영상복합문화공간과 정보 기술, 전시 컨벤션센터, 관광 엔터테인먼트, 국제 비즈니스, 고급 주거시설 등을 갖춘 부산지역 최고의 첨단 혁신도시이다(부산역사문화대전, 2020).

재송동은 취약계층이 많은 노후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센텀시티에 인접하여 지가상승 가능성이 커서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³⁾ 그러나 센텀시티에 상업시설과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센텀시티 내부보다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싼 재송동 또한 주거지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잦은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재송동은 산자락에 조성된 전통마을과 노후주택, 아파트,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모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이 뒤섞이게 되었으며, 현재도 급격한 지역사회 환경 변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 부합하는 지역을 탐색하여 재송동으로 선정한 후 지역의 A 노인복지관을 통해 20년 이상 재송동 거주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문제가 없고 스마트폰 조작을 통한 사진 촬영과 저장이 가능한 지원자 14인 중 사전 면접, 복지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거주 기간, 연령과 성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여자노인이 3명, 남자노인이 2명이었으며, 연령은 80대 1명, 70대 3명, 60대 1명이었다. 지역 거주기간은 평생을 재송동에 거주한 1명을 비롯해 모두 20년 이상의 장기거주자였다. 혼자 사는 1명을 제외하면 다른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 1인, 빌라 1인, 단독주택 3인 등으로 대체로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일반 3인, 저소득 1인, 차상위계층 1인 등이었으며, 모두 A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이었다.

[표 2]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번 기호	성별	연령	거주 기간	주거 형태	가족 형태	경제적 수준
A	여	79	24년	빌라	배우자, 아들 동거	저소득
B	남	80	50년	단독주택	단독	일반
C	여	73	73년	단독주택	자녀 부부, 손자와 동거	일반
D	남	79	32년	단독주택	배우자 동거	차상위
E	여	66	38년	아파트	배우자, 아들 동거	일반

3)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이 선발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재생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발생한다 (오영삼 외, 2019). 재송동이 바로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

3) 자료수집과 분석

총 5명의 연구참여자와 함께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주간 5회기의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포토보이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연구참여자와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내용 중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삶과 지역사회 경험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차례로 일대일로 만나 지역사회 이주 동기, 개인 경험, 이웃, 재개발 관련 의견, 기억에 남는 일화 등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1시간 30분~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개별 심층면접에서는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재확인하고 지역에서의 삶과 개인의 생애 경험을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에는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의 매회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 회차별 집단토론과 개별 심층면접 진술의 음성변환 텍스트(CLOVA note 앱 활용),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료 분석은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문단별로 코딩을 진행한 후 코딩된 내용을 다시 범주로 묶는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범주나 주제 등을 발견하면 자료의 처음으로 돌아가 주제와 범주를 재확인하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포토보이스의 사진과 진술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된다(Latz, 2017).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별로 사진 자료를 분류하고 집단프로그램의 진술 내용과 개별 심층면접 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사진과 텍스트 자료를 매칭하였다. 도시재개발의 의미와 영역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고, 매칭된 자료를 반복해 읽고 검토하면서 주제어와 주제를 코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제와 범주에 따라 사진과 인용 진술들을 재배치하고 주제별 대표사진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후속모임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주제를 참여자들과 공유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촬영한 총 128장의 사진과 텍스트를 재개발의 의미와 재개발의 방향성이라는 두 범주로 나누었다. 재개발의 의미 범주에는 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재개발의 방향성으로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에서 도출된 주제어를 제시하고, 범주와 주제에 따라 사진을 분류하였다(표 3). 주제별 대표 사진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주제별 내용을 인용 문장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사진 이미지의 범주 및 주제와 주제어, 사진 내용과 빈도

범주	주제	주제어	사진 이미지(사진수(%)) N=128
재개발의 의미	사라졌으나 잊을 수 없는	사라짐, 잊음, 아쉬움, 비어있음, 열심히 산 흔적, 낡설어짐, 불편함, 아쉬움, 쓸쓸함과 허무함, 상전벽해, 지나간 것, 기억, 마음속에 남음, 과거와 현재의 이어짐, 잊기 전에 알려야함	과거 재송동 사진, 옛 간이역, 최초 동사무소 터, 비행장 터, 과수원 터, 논밭 자리, 초등학교, 복개된 개천, 빈집, 문 닫은 가게 (연탄가게, 가스가게, 양품점, 오래된 단골 식당 등), 전통생활용품 (31(24.2))
	얻은 것과 잃은 것	교통 편리, 집값 오름, 이동의 자유, 최신식 화려함, 이익, 예산 투입 증가, 복잡한 길 정리, 도로가 새로 생김 나고 자란 삶의 뿌리, 정든 이웃, 유대관계, 동네 행사, 나눔, 다 함께 함, 골목길	3개의 역, 재개발예정 아파트, 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12(9.3)) 골목길, 전통시장, 주민게시판, 동민체육대회, 이사 간 이웃 (15(11.7))
재개발의 방향성	동네 개성의 보존	역사, 보존, 오래된 것의 소중함, 뼈대(원래 모습) 유지, 개성 있는 동네, 자연과 동네의 어우러짐, 숲과 강 보존, 다양한 건물 공존, 구 주민과 신 주민 어울림, 사람 사는 맛(인간적 매력), 받은 정 돌려주기	사당, 재송역사박물관, 가마솥, 마을정자, 우물터, 약수터, 동네 전경, 수영강, 장산 숲, 등산로, 주택과 아파트 공존(27(21.1))
	번듯한 동네보다 안전한 동네	보행 불안, 도로 위험성, 위태로운 장애물, 부실 공사, 소음과 대기오염, 도시계획 필요성, 안전 우선, 차보다 사람, 노인과 어린이 중심	제설함, 공사장, 위험한 차도, 보행 장애물, 불법주차, 건물목, 핸드레일, 보행자 쉼터, 방치된 오토바이, 짧은 신호등, 가파른 계단, 복잡한 케이블 선(22(17.2))
	다양성과 포용성의 주민편의시설	일상 생활 개선, 다양한 사람들, 활력, 젊은 세대 유입, 생활의 여유, 즐길 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 공간의 유익한 활용, 문화 혜택	노인정, 복지관, 어린이집, 게이트볼장, 생활 체육시설, 병원, 길거리 벤치, 역 광장, 화단, 강변산책로 (16(12.5))
	개발 주체의 공공성과 주민참여	난개발, 막개발, 기업의 이기주의, 주민 생활 희생, 공공 주체 개발, 주민 입장 반영	모텔, 재건축 건물, 기업 부지 (5(3.9))

1) 재개발의 의미

(1) 사라졌으나 잊을 수 없는

‘사라졌으나 잊을 수 없는’의 주제에는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들(논과 밭, 과수원이 있던 자리와 그곳에서 일하던 기억, 복개되어 사라진 개천들, 전철역으로 바뀐 철도 간이역, 사라진 동사무소 터, 수영비행장이 있던 자리 등)과 한때 사람이 살았으나 재건축을 앞두고 비어있는 집, 문 닫은 가게(가스가게, 단골식당, 양품점 등), 이제는 용도를 다한 생활용품(리어카, 지게) 등이 포함되었다.

주제를 대표하는 사진으로는 재송동 최초의 동사무소 터와 간이역 터 사진을 선정하였다. 동사무소로 상징되던 삶의 터전이 현재 재개발의 기지인 부동산이 되고 출퇴근의 주요수단이었으나 이제 흔적만 남은 철도 간이역 사진들은, 물리적으로 상실된 장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들에서의 삶의 기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재개발은 과거에 존재하던 장소와 공간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장소와 공간이 생성되는 과정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과거 흔적의 사라짐에 대한 인식이 보다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지금 사라진 장소나 건물의 흔적들은 바로 과거 삶의 흔적들이며, 그 삶은 연구참여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의미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흔적들”의 사라짐에 대한 인식은 상실과 허무, 아쉬움으로 나타난다 (“동네에서 사라지는게 너무 많다. 갈수록 더하겠지. 다 사라질 일만 남았다.....쓸쓸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고, 너무 아쉽다”(E)).

	
<p>“이곳은 최초의 재송동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고 60년대에 재송동 최고 중심가였던 곳이다. 주변은 다 산이었다. 사람들이 밀가루, 쌀 배급 타느라고 동사무소 앞에 길게 줄서있던 풍경이 기억난다. 다들 배고픈 시절이었어도 열심히 살았다. 지금은 땅 사고파는 부동산만 자꾸 생겨서 뒤송송하다.”(C)</p>	<p>“동해선 철길의 옛날 재송역이 여기 있었다.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만 사용되던 간이역이었는데, 지금은 전철 재송역이 되었다. 버스도 별로 없고 지하철도 없던 때라서 기차에 늘 사람이 많았다. 재송동이 워낙 멀어서 시내 나갈 때도 요긴했다. 지금은 옛날 역이 있던 흔적만 남아있고 빈 채로 있어서 쓸쓸한 모습이다.”(E)</p>

이러한 심리적 상실감은 재개발로 낯설어진 공간에서 오는 실질적인 불편으로도 이어진다. 오랜시간 동안 친숙해진 장소들이 사라지고 단골 식당과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변화한 상권이나 편리한 시설은 노인들에게 오히려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많아지면서 마트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근처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자, “편하게 다니던 단골 식당이 없어져서 아쉽고”(A), “한가지만 살려고 해도 마트까지 가야한다.”(C). 오랫동안 이용하던 연탄가게와 가스가게는 이제 영구히 문을 닫게 될 터이다.

이처럼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 재개발로 급변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느끼는 상실의 감정은 ‘장소 애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소 애착은 인간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 영역 속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 의존성, 친분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조진호, 최열, 2018). ‘사라지나 있을 수 없는’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재개발로 흔적없이 사라진 주요 장소들에 대한 감정은 지나간 시간과 개인의 생애기억과 관련된 정체성에 해당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던 가게와 상가 및 시설의 부재는

생활상의 의존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한 물리적 장소의 상실은 남겨진 기억의 중요성으로 귀결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고 소환함으로써 더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장소와 관련된 기억은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노력하였다. 지금은 복개되어 도로가 된 사라진 우물터를 이야기하며 우물물 먹던 시절의 기억과 상수도가 설치되던 날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사라진 간이역을 이야기하며 열차로 출퇴근하던 경험을 떠올리는 식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논밭과 과수원 풍경, 최초의 초등학교가 생기기 전 십리길 등교, 미군부대와 군사비행장이 있던 시절, 산나물 캐고 나무하러 다니던 이야기 등 개인의 생애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라기보다 개인의 생애사적 정체성이 산과 강에 인접하고 군사지역으로서 도시화가 지체된 “변두리”동네로서의 재충동 지역의 특성과 관련되어 형성된 과정을 보여준다. 지역에서 사라진 장소들과 기억의 흔적들을 통해 노인들은 오래 살아온 장소를 중심으로 삶의 과정과 정체성을 확인함을 알 수 있다(“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처음 도시로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깐 별 수 없이 여기 변두리로 들어왔지. 다 산이고 논밭이고 그러니까, 땅이 짚거든. 맨 손으로 시작해서 50년 동안 내 집 마련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돌아보면은 이 동네서 잘 살았구나 싶다.”(B)) 상실된 장소에 대한 기억은 이미 사라진 공간 속에서나마 공간과 관련된 생애 기억을 간직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얻은 것과 잃은 것

	
<p>“역이 가깝고 차비도 안내니까 나이든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 할매들은 이거 타고 부전시장 나가서 콩나물 한 개 사고 점심 사먹고 오지. 노인들도 이리저리 좀 땡겨야 심신이 건강해지는데, 교통수단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거든(B).”</p>	<p>“이 동네 처음 와서 살던 데인데 재개발되면 이제 없어지겠지. 근방에서 제일 큰 단지여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다.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새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 살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이 동네 떠나서 딱데로 갈 생각은 아예 안한다.”(E).</p>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노인들이 인식하는 재개발의 결과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아파트 재개발로 땅값이 올라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새로운 전철역이 건설되어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주차장과 도로가 새로 생기는 등 재개발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나타났다(9.3%). 재개발로 인해 잃은 것과 관련된 이미지는 이보다 더 많았는데(11.7%), 사라지게 될 오랜 골목길, 상권이 위축된 전통시장, 주민들끼리 각종 소식과 소통을 나누던 주민게시판, 몇 년 전부터 중단된 동민 체육대회, 이사간 이웃이 살던 집 등이 포함되었다.

재개발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대표하는 사진으로 신설된 역과 지역 재개발의 상징으로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노인으로서의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좋아했다고 여기는 점은 교통편의성의 증진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의 접근성 개선이었다. 신설된 전철역은 노인들의 이동과 자유의 증진을 의미한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사진은 재건축에 따른 재산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오랫동안 함께 살던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상징하는 모순된 의미를 담은 이미지이다.

전반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편의시설 증대라는 면에서 재개발을 지역사회 발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컨대 인근 센텀시티의 발전으로 재송동 인근에는 3개의 역(센텀역, 원동역, 재송역)이 생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도시철도와 같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은 노인들의 여가와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에서 근거리 세 개나 지어진 역은 지나치게 급격한 도시 팽창과 예산 낭비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1인은 살던 아파트의 재개발로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으며(“20년 넘게 살던 집을 안팔고 갖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돼서 값이 좀 올라서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죠”(E)), 1인은 집 앞에 도로가 생길 예정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판매할 것을 종용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은 부동산가격과 상관없이 이 동네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다(“많이 준다고 집을 팔라는데, 나는 판데 평지 동네로 이사가고 싶지 않다. 동네가 좀 불편하고 못살아도 정들고 친해져서 좋은 거다”(C)).

재개발의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많은 이웃들이 집을 팔고 떠나가고 이로 인해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며 몇십년간 늘 다니던 골목길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소식과 각종 정보가 오가던 주민게시판이 텅비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벌이던 동민체육대회와 노래자랑 같은 행사가 중단된 것은 지역사회 환경 변화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오랫동안 존재하는 마을에서 형성된 공동체성이 뿌리가 되어 지역주민이 다함께 할 수 있는 행사와 잔치 등이 많았던 재송동의 특성상 공동체적 유대관계의 해체와 상실은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에게 큰 ‘잃은 것’으로 여겨졌다(“처음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여기 와서 옆에 자리잡게 해준 이웃들이 있어서 뿌

리내리고 살았다. 재개발되면서 이웃사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너무 아쉽다”(E).

2) 재개발의 방향성

(1) 동네 개성의 보존

	
<p>“우리집 가마솥 단지. 이 솥은 동네 솥이라 장례, 잔치, 경로당 어르신 대접할 때 각종 국과 죽을 다 여기서 끓인다. 요즘 사람들은 나무를 때서 쓰는 이런 가마솥을 아마 직접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극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솥을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C)</p>	<p>“개인주택하고 아파트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우리동네 골목. 예전보다 아파트가 많아졌지만 개인주택 지역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옛날부터 살던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골목길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잘 어울려 살아 간다.”(D)</p>

재개발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동네의 개성”으로 지역 전통과 공동체성, 자연을 꼽았으며, 이와 관련된 사진 이미지가 전체의 21.1%로 큰 비중을 나타내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상징이었던 사당, 재송역사박물관, 가마솥, 정자, 우물터와 약수터, 배산임수의 동네 전경, 장산과 수영강, 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골목길 이미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 오래된 가마솥 사진과 아파트와 주택이 공존하는 골목길 풍경이 재송동 지역의 전통과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선정되었다. 가마솥 사진은 동네의 각종 행사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공동체성을 상징하지만 오늘날에는 낯설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간직과 보존의 상징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골목길은 다양한 주택양식이 공존하고 새로운 주민과 원래 살던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네의 특성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은 “50년간 변화가 없다가” 센텀시티와 구청 이전 등으로 갑작스레 몰아닥친 개발 광풍에 동네 모습이 급변하고 지역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으며, 재송동만의 특성과 역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동네 모습이 다 사라지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동네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너무

쉽게 바뀌는 개발 방식은 길게 보면 동네를 다 망친다.”(D)). 특히 “개발이나 땅값 오르는 것보다 나고 자란 곳에 대한 애착”(C)과 주요 장소의 보존을 중요시하였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 이전 세대와 현 세대는 기억을 통해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고 나면 기억도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나면 옛날하고 지금 세대하고 연결해줄게 아무것도 없잖아요?”(E)).

연구참여자들은 이전부터 살던 주민과 이주민, 여러가지 주거양식이 어우러진 재송동의 다양성에 기반한 공동체성을 지역정체성의 핵심으로 생각하였다(“좀 번두리라도 이 동네가 나름대로 괜찮은 데다. 아파트 많고 으리으리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여기처럼 작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렇게 복닥거리고 내 집 같이 이웃하고 드나들면서 사는 인정 넘치는 모습, 사람 사는 맛이 남아있다.”(D)). 이러한 공동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층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고층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이 공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동네에 고층아파트만 뻑뻑하고 개인주택이 없으면 멋이 없지.”(B)). 그러나 재송동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환경은 점점 더 높고 더 뻑뻑하게 채워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모두 사라지고 새 아파트와 초고층 건물들만 남게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오래된 마을과 자연을 품은 재송동만의 인간적인 매력”(E)이 신축 건물들과 공존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장산이라는 큰 산 기슭에 자리잡고 수영강을 마주하고 있는 재송동의 자연환경 특성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사회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로 숲이 줄어들 것을 “동네 기운”의 쇠락으로 여겼으며, 자연 보존의 희망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자연의 보존은 곧 동네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다 (“옛날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면 못살 사람도 산다 했어요 사람을 살린다고 ‘산’이라는 말도 있고..... 산이 사라지면 동네 기운도 없어지겠지요 ”(C)).

(2) 번듯한 동네보다 안전한 동네




“여기를 거의 매일 다니는데, 오르막이고, 인도가 제대로 없어서 늘 불안불안하다. 그래도 얼마 전부터 길가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그거 잡고 겨우겨우 올라 다닌다. 우리동네 길은 다 산을 깎아서 만든 길이라 경사도 심하고 인도, 차도 구분이 없다. 이런 위험한 길들을 어떻게 좀 넓히고 인도를 만들면 안될까?”(A).

바람직한 재개발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많은(17.2%) 이미지는 안전과 관련되었으며, 이는 재개발이 도시 외관의 개선(“번듯함”)보다 주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차도와 구분되지 않는 오르막 보행로와 가파른 차로, 위험한 계단, 핸드레일, 신호가 짧은 신호등, 쉼터 없는 인도, 차량과 오토바이의 인도 주차, 재건축 공사장 등의 사진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번듯한 동네보다 안전한 동네” 주제의 대표 사진으로는 동네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은 위험한 오르막 보행로 사진을 선정하였다. 매일 힘겹게 걸어야 하는 노인들에게 보행로 정비가 가장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산 중턱에 택지가 조성되어 주요 도로가 경사로인 재송동의 특성상 보행 상의 위협 요인이 특히 많고, 차를 운전하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이동하는 노인의 안전이 도외시되는 부산 지역의 전체의 열악한 보행여건과 관련된다. 핸드레일이나 인도, 보행자 쉼터, 주차장 설치 등으로 보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건물 건축보다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도시에서 보행약자인 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도 확보, 보행 안전을 위한 각종 장치가 필수적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개발과 건물 증,개축이 지속되면서 재송동 지역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복잡해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여건도 생각 안하고 임대료 받을라고 무작정 고층건물만 지어제끼는데, 먼저 기반시설을 갖추고 건물을 지어야한다”(C)는 의견이 많았다. 속성 재건축과 부실 공사 등이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재개발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번듯한 동네보다 안전한 동네”(D)를 지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다양성과 포용성의 주민편의시설

	<p>“재송동 하면 장산이다. 장산 곳곳에 다섯 군데 넘는 체육시설이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다. 숲속에 운동시설이 있으니 매일 운동하면서 산에 다닐 수 있다. 나 이 많은 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참 좋다.”(D).</p>
---	--


바람직한 재개발의 방향성에서 주민편의시설 관련 이미지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의미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12.5%). 여기에는 노인정과 복지관, 어린이집, 각종 생활체육시설과 의료시

설, 문화시설, 화단, 산책로 등이 포함된다. 주민편의시설의 대표 사진으로 재송동 노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숲속 생활체육시설을 선정하였다. 이것은 재개발의 결과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즉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져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D)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B)를 위한 시설들이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가, 운동, 산책, 문화 활동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노인들만의 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며, 젊은 세대와 공존하며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원하는 노인세대의 바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지역사회주민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소통할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새로 생긴 도시철도 역 주변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다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이 공간에 문화행사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공감하고 같은 경험을 나누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애기들도 올 수 있고 청소년들 공연도 하고 나이든 사람들도 구경하고 같이 모여 놀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C)).

(4) 개발주체의 공공성과 주민 참여

	<p>“원룸, 모텔 짓는다고 매일 공사 중이다. 이것은 원래 5층짜리 모텔이었는데 초고층으로 재건축하고 있다. 지금도 이 근방에 모텔만 40개가 넘는다.”(A)</p>
---	---

‘개발주체의 공공성과 주민 참여’ 주제를 보여주는 이미지는 소수(3.9%)였으나, 연구참여자들의 진술과 손편지에서는 주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대표사진으로는 재건축중인 초고층 모텔 사진을 선정하였다. 근방에만 이미 40개 이상인데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 모텔의 이미지는 지가와 임대료 상승을 위한 재개발이 지역사회주민의 삶에는 도움이 되기

보다 불편을 초래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공공이 주체가 되는 체계적인 재개발과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2010년대 이후 시작된 재송동의 재개발은 원룸이나 모텔 등 임대료 수입을 위한 소규모 민간 재개발 중심으로 ‘난개발’과 ‘막개발’ 양상으로 난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이 마구잡이로 재건축, 재개발하지 말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재개발을 해야 한다”(B)고 입을 모은다. 투기나 임대료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은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오래 살아온 동네를 떠나 낯선 동네로 이주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이주 비용 및 재개발 후 분담금 등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민간 위주 재개발에 더욱 부정적이다 (“우리집을 팔아서 판데 갈수도 없고,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어도 돈을 더 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노인들은 그럴 형편이 안된다. 재개발하면 건설업자나 배불리는 거지.”(D)).

연구참여자들은 거주지역의 막개발 과정을 10여 년간 경험한 후, 체계적으로 계획된 공공 재개발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여기 개발붐이 불어서 땅값만 올라가고 동네 환경은 자꾸 나빠진다. 집 가지고 돈 버는 경제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고층아파트 자꾸 지어버리면 들어갈 인구도 없는 데.... 2-30년 뒤를 생각해야지. 주택공사 같은데서 공동주택, 공공주택 지어서 공급해야 된다”(B)). 이와 같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지역의 변화를 지켜본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은 재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목소리와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지역사회환경으로서의 도시재개발 지역에서 노인들이 인식하는 재개발의 의미와 바람직한 도시재개발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재송동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5명의 노인 연구참여자와 함께 포토보이스 프로그램과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상 살아왔고 여생을 그곳에서 마칠 연구참여자들에게 재개발의 의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가치보다 의미 있는 삶의 흔적의 사라짐, 친숙함과 편의성 감소, 유대관계와 공동체성 상실의 의미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이익과 공동체 상실에 대해 양가적 인식을 보여준 반면(이나경,

2021; 이윤희 외(2020), 이정동, 2020; 조진호, 최열, 2018),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이익과 편의성 증진을 수용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상실과 사라짐에 대한 아쉬움이 더 지배적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재개발에 따른 불편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재송동에서 삶을 마치기를 희망하였기에, 공간의 친숙함과 유대관계, 공동체성의 상실이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개인의 삶과 지역정체성이 상호 영향 속에 형성된다(최희경, 2019)는 점과 노인의 정체성 유지와 만족스러운 생활에서 익숙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보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Peace et al. 2006; Rowles & Ravidal, 2002)을 재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상실을 '장소애착'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노인에게 유의미한 지역사회환경 요인으로 이웃공동체, 주택 편의도, 주거지에 대한 애착을 제시한 연구결과(배진희 2012; 정세미, 임정숙, 2021; 최순희 외, 2018)와 일치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도시재개발 결과 주민들의 삶의 경험이 갖든 흔적과 기억이 모두 사라지기보다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기를 희망하였다. 재개발로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과거 삶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보다는 기존 지역사회환경의 특성과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진행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지역사회주민 중 노인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개발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오랜기간 형성한 친숙함과 편의성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요 장소와 시설의 보존과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재송동의 경우 오래전에 형성된 전통마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드물게 동 차원에서 재송역사박물관을 두고 과거 재송동의 역사와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송역사박물관개점 폐업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재송동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을 살려나가기 위해 재송역사박물관의 재단장과 운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간이역이 있던 자리에 역의 변천사와 사진 게시, 최초의 동사무소 터에 표지석 설치, 복개된 개천과 공동우물터 등에 과거 위치를 표시하고 설명하는 동판 부착하기, 공공기관에 과거와 현재의 재송동을 비교하는 사진 전시 등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2013년 이후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사회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고려하며 진행되고 있으나, 재송동과 같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주도의 난개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된 재개발 지역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철거 재개발의 규

모를 작게 하는 ‘소단위 철거 재개발’이나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 재개발을 하는 ‘수복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다(정석, 2016).

셋째, 재개발의 방향성에서 보행 안전을 중심으로 한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것은 보행 약자로서의 노인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보행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에서 확보해야 할 주요 기반 시설로 도로나 주차장 등이 부각되는 반면, 보행안전 문제는 부차적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근거리를 중심으로 주로 걸어서 이동하는 노인들의 일상에서 보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은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Berke et al., 2007; 이희연 외, 2015).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보행 장애물을 제거하고 핸드레일과 그늘막, 보행자 쉼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의 이동에는 큰 도움이 된다. 재개발 계획과 과정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차 없는 거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성,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재개발이 소수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기보다는 주민 편의 시설 증진을 통해 재개발의 혜택이 전체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여러 세대의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늘어나고 지역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어 활력이 증진되는 것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도시재개발의 고전으로 불리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다양한 생활공간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재개발을 강조한 것(Jacobs, 1993)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도시재개발의 계획과 실행 과정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며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재개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발적인 움직임을 중요시하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식과 접근법이 미비하여 원칙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와 괴리되는 경우도 많다(류영진, 김희재 2018; 이나경, 2021).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재개발과 자발적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개성과 매력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오랜 삶을 통해 장소의 내력과 숨겨진 일화, 지리 등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애착과 자부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자부심과 관심, 풍부한 지식은 지역사회의 정

체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자산이다. 앞으로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실행된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을 계기로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주인 의식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포토보이스 활동 결과물인 포토북을 지역사회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도시 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노인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회와 계기가 주어진다 면 주도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대해 발언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기반으로 도시 보행환경 개선, 사회의 주요 상징물 보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예를 들면 골목길 해설, 지역사회 역사 유적 교육, 동네안내 길라잡이, 지역사회 홍보 등)을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사회의 역사와 특성을 전수하는 노인들의 역할과 참여의 기회가 증진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살아가는 도시재개발 지역의 노인들이 인식하는 재개발의 의미를 당사자의 사진과 목소리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고령화되어가는 도시의 재개발에서 노인들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도시재개발의 의미와 방향성은 연구참여자 노인들의 특정한 경험과 관점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윤 중심의 난개발이 횡행하는 도시에서 모든 세대의 다양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행한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이 지역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자부심을 증가시키고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노인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큰 성과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특성상 특정 지역의 소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평소에 노인복지관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험과 인식의 의미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

■ 참고문헌 ■

- 강혜규, 엄태영, 류진아 (2017).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유형 및 내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31-4.
- 권은선, 김광중(2011). 주택재개발에 따른 비자발적 주거이동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서울시 뉴타운 지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2(2), 41-60.
- 김동완(2019). 도시재생 다시 읽기: 이데올로기로서 쇠퇴도시와 도시재생. 경제와 사회, 2019.6, 106-137.
- 김용진, 안건혁. (2011).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89-99.
-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3), 1-22.
- 류영진, 김희재 (2018).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CBPR에 대한 메타적 고찰-한국과 일본의 연구사례를 통하여. 동북아문화연구, 57, 99-123.
- 배진희(2012). 주거 관련 요인이 농촌 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 1-25.
- 신현주, 강명구(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3), 25-46.
- 오영삼, 김수영, 정혜진(2019). 도시재생사업의 탐색을 통한 쇠퇴지역 내 지역주민의 거주문제와 삶의 질 증대의 모색: 부산해운대 우동 지내마을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1), 108-135.
- 이나경(2021).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 탐색: 창신·송인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9(3), 163-194.
- 이삼수(2017).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공공 역할 및 협력방안. 경남발전. 139, 16-27.
- 이상철, 박영란, 정은화(2016). 노인이 인식한 고령친화 환경의 구성개념과 활동적 노화와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도시연구, 17(2), 119-137.
- 이영아(2019). 우리나라 도시재생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13~2018년 도시재생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공간과 사회, 29(3), 192-232.
- 이영은(2018). 도시재생의 목적, 성장인가 지속인가. 공간과 사회, 28(2), 5-11.
- 이운희, 김수현, 고은아(2020). 도시재생 기반의 주민조직화 사업 의의 연구 -S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참여 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2, 27-62.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2020).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동(2020).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실태연구: 주민참여프로젝트팀과 사업화지원비를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10(2), 55-70.
- 이재우, 유재운, 최창규, 홍경구, 강성길, 강동석, 정소양(2014).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방향과 과제. 도시정보, 382, 3-20.
- 이희연, 이다예, 유재성. (2015).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분포와 근린환경 특성- 서울시를 사례로 -. 서울도시연구, 16(2), 1-18.
- 정석(2016). 도시의 발견-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인문학. 서울: 메디치 미디어.

- 정세미, 임정숙 (2021).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및 다집단 분석. *보건사회연구*. 41(1). 127-145.
- 조진호, 최열(2018). 장소애착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및 Gentrification에 대한 주민 의식 분석 - 도시재생 사업지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지*. 16(1). 65-82.
- 주대관(2018). 사회적 재생에서 공동체 참여와 배제: 해방촌 신흥시장 상생협약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8(2). 115-157.
- 최순희, 윤현숙, 김영범, 임연옥. (2018). 노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시와 농촌 지역 비교. *노인복지연구*. 73(1). 111-132.
- 최희경(2019). 도시 저소득층 노후지역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과 변화의 방향성 연구. - 포토보이스 결과를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74(4). 95-122.
- 해운대구(2019). 해운대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토교통부(2020). 도시재생뉴딜사업 보도자료. <http://www.kharn.kr/mobile/article.html?no=14260> 2021. 5.10 인출.
- 부산역사문화대전(2020). 부산향토문화백과(재송동, 재송마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3> 2021.10.10. 인출.
- Aneshensel C. S., Wight, R.G., Miller-Martinez, D., Botticello A. L., Karlmangla A. S., & Seeman, T. E. (2007). Urban neighborhood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2B. S52-S59.
- Berke E.M., Gottlieb, L. M/, Moudon, A.V., & Larson, E.B.(2007). Protective 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walkability and depression in older men.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5. 526-533.
- Buffel, T., Phillipson, C. & Scharf, T.(2012). Ageing in urban environment: Developing 'age-friendly' cities. *Critical Social Policy*. 32(4). 597-617.
- Diez Rouz, A. V. & Mair, C.(2010). Neighborhood and healt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446. 125-145.
- Duffy, L.(2011). Step-by-step we are stronger: Women's empowerment through photovoice.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8(2). 105-116.
- Dumbrill, G. C. (2009). Your policies, our children: Messages from refugee parents to child welfare workers and policy makers. *Child Welfare*. 88(3). 145-168.
- Gary, T.L., Stark, S.A. & LaVeist, T.A.(2007).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among African Americans and whites living in a racially integrated urban community. *Health Place*. 13. 569-575.
- Houben P. (2001). Changing housing for elderly people and co-ordination issues in Europe. *Housing Studies*. 16(5). 651-673.
- Jacobs, J.(1993).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Y: Random House.(유강은 역(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서울: 그린비).
- Jurkowski, J. M., & Paul-Ward, A.(2007). Photovoice with vulnerable populations: Addressing disparities in health promotion amo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ealth Promotion Practice*. 8(4). 358-365.
- Latz, A. O.(2017).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 A practical guide from theory to*

- exhibition*. (김동렬 역(2018).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참여적 행동연구. 서울: 학지사).
- Menec, V., Means, R., Keating, N., Parkhurst, G., & Eales, J.(2011). Conceptualizing age-friendly communities. *Canadian Journal on Aging*, *30*(3), 479-493.
- Phillipson, C. (2010). Ageing and urban society: Growing old in the 'century of the city', in Dannefer, D. & Phillipson, C. (eds). *The sage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London: Sage. 597-606.
- Peace, S., Holland, C. & Kellaher, L. (2006). *Environment and identity in later life*. Berkshire: Open Univ. Press.
- Rowles, G & Ravdal, H.(2002). Ageing, place and meaning in the face of changing circumstance, in Weiss,R. & Bass, S. (eds), *Challenges of the third age: Meaning and purpose in later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2-131.
- Wang, C., &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269-387.
- Weich, S., Blanchard, M., Prince ,M., Burton, E., Erens, B.,& Sproston, K.(2002). Mental health and the built environment: Cross-sectional survey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risk factors for depress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0*, 428-433.

◀ Abstract ▶

A Study on Elderly Perceptions about the Meanings and Directions of Urban Community Redevelopment

Heekyung Choi*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perceptions of elders concerning meanings and future directions of urban redevelopment. Photovoice research method was adopted to emphasize elderly initiative participatory actions. 5 elders having resided more than 20 years in Jae-Song Dong, Haeundae restrict, Busan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in-depth interviews. 6 themes under two main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n 128 pictures taken by the participants, documented texts from the discussions and in-depth interviews, and letters written by the participants. 'disappearing but unforgettable' and 'gain and loss'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eanings of redevelopment. 'preserving community characteristics', 'safety rather than appearance', 'community facilities for diverse population', and 'public agency and civil participation'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directions of redevelopment.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opinions of elderly participants: preservation of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increasing walk safety, promoting voluntary civil participation.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elderly contribution on urban redevelopment, which meant the importance of participatory community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Keywords: urban redevelopment, community, elders, meanings of redevelopment, directions of redevelopment

◆ 2022. 1. 12. 접수 / 2022. 3. 6. 1차수정 / 2022. 3. 19. 게재확정

* Ph. D., Professor, Dept. of Counseling and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hkyung@silla.ac.kr)